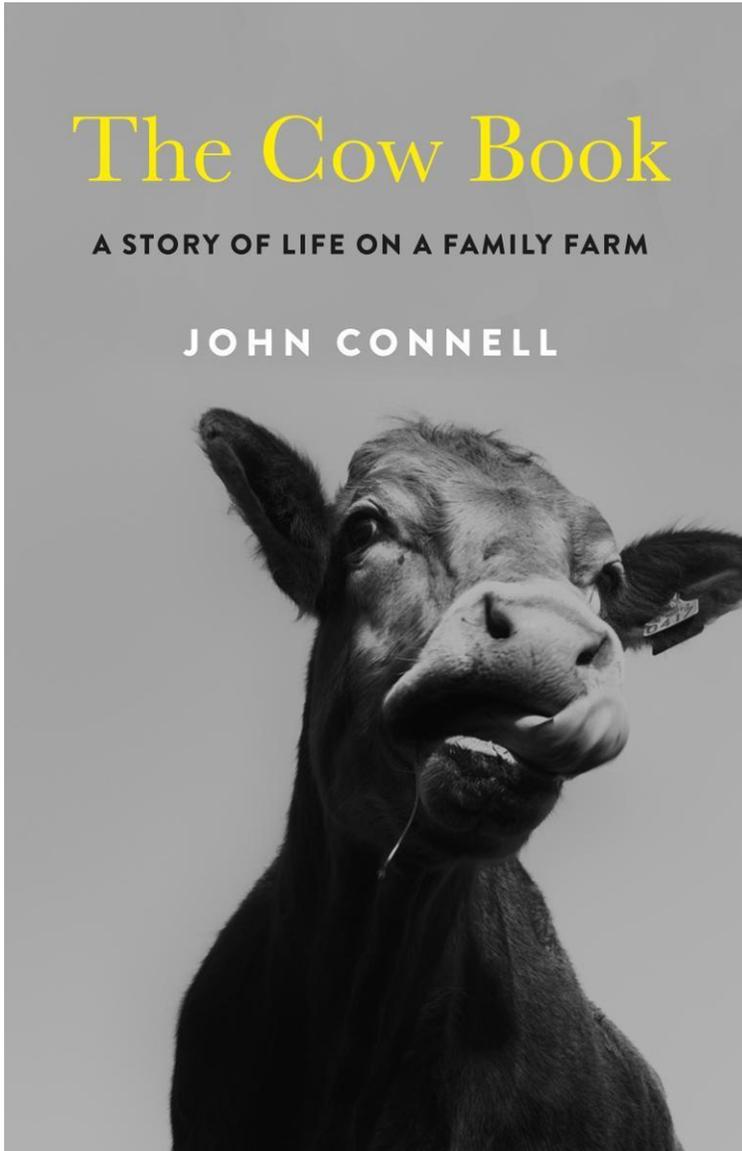


The Cow Book

A STORY OF LIFE ON A FAMILY FARM

JOHN CONNELL



카우북

소 치는 소설가의 일상

존 코넬

책날개

존 코넬의 집안은 대대로 농장을 운영했지만 존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어느 겨울 문득 농장으로 돌아가 농부의 길과 소의 길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해 겨울의 이야기이다. 코넬은 헛간을 치우고 쇠꼴을 쌓고 갓 새끼를 낳은 암소의 젖을 짜고 땅을 거닐면서 경험한 농장 생활의 최면적 율동을 기록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송아지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거나, 비가 굶지 않거나, 병이 돌거나, 우울증이 가시지 않거나, 말다툼을 벌이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마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온다. 고대 이집트의 소 가축화와 승배에서 카우보이 이미지와 투우를 거쳐 현대의 산업 영농에 이르기까지 소에 대한 이야기도 곳곳에 엮여 있다.

《카우북》은 한 인간의 농부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전통적 가족 농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탄생과 삶과 죽음의 자연적 순환을 담담하게 관조한다.

“존 코넬에게 농사일은 고된 노동이자 그를 가족, 나라, 언어, 신화와 묶어주는 영적 행위이다.”

— 앤드루 마이클 헐리, 《로니 The Loney》 저자

존 코넬은 문예지 《그랜타》의 〈아일랜드의 새로운 작가들 New Irish Writing〉 호에 작품을 발표했다. 롱퍼드 군에 있는 가족 농장 버치뷰에서 산다.

“아름다운 책. 저자의 목소리는 솔직하고 다정하며 그의 눈은 맑고 예리하다. 주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글쓰기의 시적 힘이 숨어 있다. 이 감동적인 책은 가족에 대한, 인간과 땅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나날에 의미를 부여하는 삶과 죽음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이다.

— 지아 하이더 라만, 《우리가 아는 것에 비추어 In the Light of What We Know》 저자

뒤표지

“이 책은 좀처럼 보기 힘든, 숨겨진 새 아일랜드의 생활 방식을 예리하게 관찰한 생생한 기록이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서 삶과 죽음, 풍경, 물려받은 유산을 관찰하는 타고난 관찰자이자 독보적 감수성의 소유자가 그려낸 매혹적 초상화이기도 하다.

— 콜름 토이빈

“종종 차창 밖으로 아일랜드 시골을 보지만 이 매혹적인 책을 읽고나니 소 치는 농부가 된 기분이다.”

— 로디 도일

“온기와 진실과 은은한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근사한 읽을거리.”

— 세라 봄, 《흐르고 끓고 흔들리고 시들다 Spill Simmer Falter Wither》

“외부인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을 지닌 내부인이 허심탄회하게 쓴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농업사의 중요한 단편.”

— 로저먼드 영, 《소의 비밀스러운 삶》 저자

헌사

메리, 믹, 존에게

고마운 사이먼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이자 스승 데이비드 멀루프에게

제사

물 마시러 가는 소 떼의 길,
도랑 가장자리에 깔린 초록색 돌,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이 손대지 않은 아름다움의
거룩한 얼굴.

— 패트릭 캐버노, 〈크리스마스 유년기 A Christmas Childhood〉

“매 계절을 지나가는 대로 살라. 공기를 들이마시고 물을 마시고 열매를 맛보고 이 모든 것에 자신을 내
맡기라.”

— 헨리 데이비드 소로, 1853년 8월 23일 일기

차례

헌사

제사

1 월

2 월

3 월

4 월

5~6 월

감사의 글

1 월

시작

나는 스몰아홉 살이고 송아지를 내 손으로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참이다. 지금 산도에 팔을 넣어 송아지의 발을 찾고 있거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송아지 꼬리를 들고 있거나 마지막 순간에 송아지를 끄집어내는 조수 노릇만 했다. 아버지는 25년간 송아지를 받았는데, 그 뒤에 형이 물려받았다가 이제 내 몫이 되었다.

나는 외국에서 지내다가 소설을 써서 작가로 성공해보려고 고향인 아일랜드 시골에 돌아왔는데, 잡자리를 얻는 대가로 농장 일을 돕기로 했다. 지금의 분만分娩에서 나는 많은 일을, 어미소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붉은 어미소가 움찔하니 힘이 얼마나 센지 실감 난다. 서둘러야 한다. 송아지의 발에 분만용 밧줄을 둘러 무릎 위까지 끌어올린 뒤에 힘껏 잡아당겨야 한다. 양수에 손과 팔이 젖는다.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가 기억난다. 조금 있다 손이 젖는다고, 그러면 어미소의 자궁 수축이 힘을 받을 거라고. 송아지가 죽지 않게 하려면 몸을 쨍싸게 눌러야 한다.

내가 혼자라서, 이 일을 직접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잠깐 든다. 물론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랬다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며 나 스스로 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부르지 않겠다. 첫 번째 발을 움켜쥐고 무릎 위까지 분만줄을 끌어올린다.

붉은 어미소를 밤새 지켜보았기에 분만이 임박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어미소는 맘—우리 어머니—말마따나 아픈 몸으로 외양간을 서성이며 풀도 견과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때 산도가 소시지처럼 빠져나온 것이 보였다.

다—우리 아버지 톰—는 집에 없다. 데이비 삼촌이랑 양을 사고파는 양시장에 갔다. 둘은 나이를 먹으면서 다시 친해졌다. 이젠 매주 양을 팔러 나간다. 양은 새로 들인 가축이다. 기른 지 3년 밖에 안 됐다. 데이비 말마따나 어느덧 양 ‘떼’가 되었다. 데이비와 다가 양을 사고파는 것은 취미이다. 함께할 수 있는

취미. 무엇보다 아버지가 행복해 한다. 외향적인 사람이거든. 아버지가 양시장 가는 것에 대해선 전혀 불만 없다. 당신에게 이로운 뿐 아니라 기분 전환이 된다는 걸 아니까. 양시장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도 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소가 분만하는 계절엔 다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전에 없던 존경심이 생기긴 했다. 작고 연약하고 여전히 가냘픈 존경심이기는 하지만.

반대쪽 발을 잡았다. 문간에서 두 번째 분만줄을 가져다 송아지 다리에 두른다. 분만줄이 미끄러져 떨어지자 욕이 터져 나온다. 이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싶지만, 너무 늦었다. 기다리다 송아지가 죽으면 바보 같이 혼자 시도했다는 비난을 듣고 말다툼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건 안 되지. 집중해야 한다. 어미소는 내가 진정시키려고 준 견과를 거의 다 먹었다. 견과가 떨어지면 고통을 기억해내고 몸부림치면서 발길질을 할 텐데, 그러면 일이 훨씬 힘들어질 것이다.

몸을 낮게 숙여 분만줄을 잡고 다시 도전한다. 두 번째 발에 분만줄을 묶었다. 살살 잡아당기지만, 송아지가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분만기가 있어야겠다. 고정대를 어미소의 궁둥이에 대고 분만줄을 꺾쇠에 걸어 감기 시작한다.

똑바로 해야 해, 라고 혼잣말을 하지만 하도 많이 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안다. 분만기 손잡이를 당겨 새끼를 끄집어내야 한다. 가장 힘을 줘야 하는 부위는 머리이다. 머리만 나오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 나온다. 엉덩이가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손잡이를 다섯 번 당기는데 스프로킷 휠 소리가 고요한 외양간에 울려 퍼진다. 분만줄을 잡아당기는 동안 어미소가 낮게 웅얼거린다. 알아들을 수 없는, 고통과 낯섦의 소리.

‘그렇지, 그렇지’ 하며 어미소를 달랜다. 분만줄을 늦췄다가 한번 더 분만기 손잡이를 당긴다. 스프로킷 휠이 돌면서 래치가 톱니를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진다. 이제 다리가 고스란히 보이지만 머리는 아직이다. 다시 손잡이를 당기니 주둥이가 보인다. 너무 납작하다. 머리가 눌렸나보다. 어미소가 다시 신음 소리를 낸다. 발이 떨리는 게 느껴진다.

“주저앉으면 안 돼”라고 말하며 한번 더 분만줄을 늦춘다. 어미소가 다시 일어서자 아까 하던 일을 반복한다. 어미소가 자궁을 수축시켜 송아지를 밀어낼 수 있는 데까지 밀어내지만, 이젠 수축으로 안 된다. 송아지의 덩치가 너무 크다. 무를 수도 없다.

한번 더 손잡이를 당기자 어미소가 울부짖는다. 지금쯤 맘이 켜를 게 틀림없다. 잠귀가 밝으니까. 송아지를 너무 일찍 꺼내면 안 되기에 아까 밤에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머니는 평생 소를 알았고 소에 대해서는 나보다 똑똑하지만, 나는 다시 다짐한다. 지금 이걸 내 일이야.

기도를 올린다. 적어도 생각은 그렇다. 머리가 나온다. 하느님께 감사할 시간도 없다. 있는 힘껏 손잡이를 당겨 몸뚱이가 계속 빠져나오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미소가 포기하면 송아지는 죽을지도 모른다. 혀를 날름거리는 걸 보니 살아 있다는 걸 알겠다. 팔에서 점점 힘이 빠지지만 더 세게 잡아당긴다. 당기고 당기고 이제 나온다. 축축하고 튼튼하다. 어미처럼 붉은색이고 얼굴에 흰색 반점이 있다. 우리 씨소의 새끼이다. 아비 얼굴을 닮은 걸 보면 틀림없다.

영덩이가 하도 커서 분만기 원치를 끝까지 당겨야 했다. 어미소가 괴로워한다. 새끼를 비틀어 영덩이를 빼내라고 다가 말한 게 기억난다. 그렇게 완전히 끄집어내어 녀석을 두 팔에 안는다. 아드레날린이 분출해서인지 하나도 안 무겁다. 녀석을 새로 깐 깔짚에 데려간다. 분만기며 분만줄이며 죄다 치운다. 짹짹 움직여야 한다. 폐에 물이 차서 여러 마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귀에 물을 붓자 녀석이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린다. 나는 안도의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녀석이 기침을 하는데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 호흡 튜브가 달린 마스크를 주둥이에 씌운다. 펌프로 진공을 만들어 양수를 뽑아 올린다. 이론상으로는 기침으로 양수를 뱉어내야 한다. 그런데 세 번 했는데도 양수가 안 올라온다. 녀석이 쉼쩍거리기 시작한다. 이대로 잃을 수는 없어. 울부짖으며 녀석을 들어올려 문간에 데려가 매단다.

전에 본 적이 있지만 그때 언제나 두 사람이 들고 있었다. 지금은 혼자이니 힘을 더 짜내야 한다. 녀석의 폐를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자 점액이 비친다. 녀석이 고개를 든다. 이겨냈다. 마스크를 벗기고 팔에 안아 깔짚으로 다시 데려간다. 살아 있고 무사한 채로.

배꼽을 소독하고 한숨 돌리고는 농장 부엌으로 걸어간다. 팔과 얼굴에 피가 묻었지만 이건 기분 좋은 피, 생명의 피이다. 물통에서 손을 행군다. 서리가 내려 물이 차다. 손이 아린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한다. 어미소가 분만하면 ‘초유’라는 특별한 젖이 나온다. 걸쭉하고 노란색의 초유를 송아지에게 곧장 먹여야 목숨이 유지되고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는 항체가 생긴다. 송아지의 삶에서 처음 몇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할 일을 안 하면—초유를 먹이지 않거나 배꼽을 소독하지 않으면—무슨 일로 죽을지 모른다. 폐렴은 우리 농부들에게는 역병이다. 수많은 송아지가 목숨을 잃었다. 설사도 치명적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일 때는 언제나 튜브를 쓴다. 그러면 온갖 검사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송아지에게 젖을 확실히 먹일 수 있다. 위관은 플라스틱 관으로, 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다. 관을 송아지의 목에 밀어넣으면 젖이 곧장 위장까지 간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관을 잘못 집어넣어 폐로 들어가면 젖이 흘러들기 시작하자마자 목숨을 잃는다. 우선 젖을 짜야 한다. 손을 씻고 어미소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쥘다. 쓰다듬으며 두세 번 당기니 젖이 뿜어져 나온다. 아버지가 하던 대로 젖을 주물러 자연

스러운 리듬을 찾자 금세 들통이 가득 찬다. 초유는 커스티드처럼 걸쭉하고 따끈하다. 어미소의 발길질을 피해 짹짹 들통을 꺼낸다.

“진정하렴”이라고 말하고는 아무 말이나 다정하게 건넨다. 어미소는 힘든 일을 겪었으니 더는 괴롭히면 안 된다.

송아지가 깔짚에서 바스락 소리를 내자 어미소가 고개를 돌려 운다. 송아지는 ‘나 살아 있어요’라는 뜻 작고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낸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젓꼭지에서 젖을 짠다. 금세 젖이 들통 속으로 뿔어져 나오며 젖이 젖에 떨어지는 오래된 소리를 낸다. 농부라면 누구나 아는 소리. 내 어린 시절의 소리이자 우리 부모의 소리이자, 부모의 부모의 소리. 내가 속한 이 집안이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실감 난다. 외양간에서 젖을 짜느라 보낸 술한 불면의 밤. 할아버지 시절에는 허름한 집 안의 불 가에서 짤지도 모르지. 시대는 달라졌지만 소는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들통이 넘칠 지경이 되어 위관 주머니에 붓는다. 들통을 하나 더 꺼낸다. 이 들통까지 가득 채우면 젓꼭지 네 개가 모두 뚫려서 송아지가 쉽게 빨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미소는 젓꼭지가 별로 크지 않은데, 잘된 일이다. 크고 길고 덜렁거리는 젓꼭지는 송아지가 입안에 물고 있기가 힘들어서 곤란하기 때문이다.

위관 주머니가 팽 찼으니 송아지에게 먹여야 한다. 이 일도 내겐 처음이어서 긴장해야 한다. 녀석이 몸을 뒤치지 못하도록 등을 가볍게 깔고 앉는다. 그런 다음 녀석의 머리를 들어 한 손으로 입을 비틀어 벌리고 다른 손으로 튜브를 집어넣는다.

“됐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 송아지에게 하는 말인지 내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린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관이 천천히 목 안으로 들어간다. 폐는 피한 것 같아서 주머니를 들어올려 초유가 튜브를 따라 녀석의 몸속으로 흘러드는 광경을 바라본다. 끝이 머지않았다.

남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와 기쁘다.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말이니까.

송아지를 놓아주고 분만사分娩舍 회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쉰다. 그때 쪽문이 열린다. 아버지가 환한 표정으로 웃으며 서 있다.

“송아지를 낳았더군.”

“방금 저기 데려다냈어요.”

“형을 불렀어야지.”

내가 대꾸한다. “늘 사람들을 부를 순 없잖아요. 직접 해야 할 때도 있다고요.”

아버지가 “그럴 때도 있지”라며 미소 짓는다.

나는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안다. 나는 시험에 통과했으며 뿌듯하다. 아버지가 쪽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온다. 작업복 외투 차림이다. 시장 갈 때 입는 파란색 벨벳 코트이다. 데이비 삼촌과 사촌동생 잭이 뒤따라 들어온다.

데이비가 “여기가 돈이 벌리는 데로군”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웃음을 터뜨린다.

나는 이제 일어선 채다. 우리는 송아지를 살펴본다. 근사한 작은 황소이다.

삼촌과 사촌동생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와 나만 남았다.

내가 묻는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대단했지.”

“양은요?”

“못 팔았어. 하지만 구경만 해도 좋더라.”

나는 어미소를 풀어주어 새끼 곁에 있게 한다. 덩치에 걸맞지 않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새끼를 핥는다. 나머지는 자연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나는 스몰아홉 살이다. 하지만 오늘 밤 훌쩍 나이를 먹은 것 같다.

지나간 여름들

아일랜드에서는 남자다운 게 중요하다. 농사를 지으면 그 느낌을,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 수 있다. 아버지는 남자다운 남자이다. 그래서 내가 늘 존경하기도 했고.

오래전 내가 가순 gasoon—소년—일 때 지나간 여름들이 기억난다. 아버지는 믹 삼촌, 존 삼촌과 함께 쇠꼴 들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언덕 중턱에 있었고 날은 화창했다. 그들은 지금의 내 나이였다. 조립 라인에 선 노동자들처럼, 행군하는 병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정사각형 꼴단을 가져다 트레일러 꼭대기에 던져 실는 광경은 경이로웠다.

농담하고 노래하고 수다를 떠는 사이에 작업은 금세 끝났다. 그때는 그들의 힘이 부러웠다.

그들은 들판의 시인처럼, 땅의 가인歌人처럼 일했다. 그들의 공통어는 음악의 언어였다. 내가 성년기에 본뜨고 싶어 했던.

20년이 지난 지금 쇠꼴을 던지는 것은 나이고 지켜보는 것은 그들이다. 몸매는 달라졌지만.

아버지와 삼촌들, 내가 아는 최초의 위대한 농부들.

농장

우리 농지는 평평하며 울타리와 나무가 뺄뺄하다. 토질은 평범하지만 우리의 노고와 땀으로 개간했다. 부모님이 여기 살러 왔을 때는 온통 늪지와 풀밭이었다. 다가 집을 지은 때는 청년일 때였으며, 삶이 앞으로 나아가듯 느릿느릿 어머니와 함께 농장을 일궜다. 우리는 집 주위에 땅이 있는데, 길 건너편과 아래쪽의 에스커, 러스키스, 클론핀도 우리 땅이다. 집 옆으로 흐르는 개울은 들관 끝에 이르면 롱퍼드 군에서 가장 큰 캠린 강에 합류한다. 풀간을 짓는데 철제 대들보를 올리려고 관 구멍에 물이 고여 그속에서 개구리들이 헤엄치던 장면이 아직도 생각난다. 미국식 ‘헛간 올리기 barn raising’를 하듯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 풀간 올리는 일을 도와줬다. 옛날 두렛일처럼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것을 아일랜드에서는 ‘메힐 meitheal’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곳에서 가축을 키운 지도 30 년이 다 되어간다. 처음의 소 세마리는 이제 거대한 무리로 성장했다. 도시 사람이 세상을 떠난 애완건을 기억하듯 그 세 마리 소를 떠올리면 아직도 애뜻하다.

지금은 한겨울이다. 역대 최고로 습한 1 월이었으며 폭풍이 우리 헛간과 들관, 강을 휩쓸었다. 군郡 서부에서는 사람들이 물에 잠겼다. 그들이 울부짖는 광경을 뉴스에서 봤다. 사료 매장에서 골웨이 출신 농업 담당 영업 사원을 만났는데, 보트를 저어 들관 위를 다니고 대문 위를 넘었다고 말해줬다. 우리 땅이 그렇게 잠기는 건 상상도 못 하겠다.

우리 땅에는 이름이 있지만, 이상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이웃들도 모두 자기네 땅에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 이름은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다와 맘이 10 년 전 로빈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러스키스를 사들이고 처음 한 일은 이름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땅의 이름은 ‘꽃사과나무 땅 Crab Apple field’, ‘감자 땅 Potato field’, ‘목초지 Meadow’였다. 영어식 이름인 이유는 러스키네 땅을 한때 해밀턴 집안에서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엘리자베스 1 세의 대농장 시절에 이곳에 정착했다. 게일어 이름은 알 수 없다. 영영 잊혀버렸다. 한번은 라디오에서 케리 출신의 유명한 스포츠 해설가가 어린 시절 고향 땅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땅 이름은 아일랜드어였는데 소리가 아름다웠다.

이곳의 땅은 오래되었으며 우리 코넬 집안은 처음에는 잉글랜드 지주의 소작인으로, 그 다음에는 소유주로 땅과 인연을 맺었다. 우리는 땅의 언덕과 구석을 밟고 그곳에서 일했다. 이곳 소란 타운랜드(아일랜드의 토지 구획 명칭.－옹긴이)에는 다른 집안과 혈통도 있었지만, 대부분 떠나거나 대가 끊겼다. 농사란 어깨에 죽음을 짊어지고 왼쪽에 절병을, 오른쪽에 정신을, 앞쪽에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을 데리고서 생존과 함께 걷는 일이다. 학교에서 배운 켈트족의 ‘창조의 십자가 cross of creation’라고나 할까.

마당에는 헛간이 세 곳 있는데, 농장이 커지면서 제각각 다른 시기에 지었다. 한번은 오래 거래한 회계사에게서 관광지 아파트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부모님이 거절했다. 우리는 아는 것은 땅뿐이라면서. 땅은 우리를 먹여살리고 풍요롭게 한다. 땅은 우리의 생계 수단이다. 다른 생계 수단은 알지 못한다. 버치뷰가 이곳의 이름이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아침

어머니는 맨 먼저 일어난다. 어머니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분만이 있지 않으면) 아무도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불침번을 선다. 그래서 어머니의 6시 오전 당직은 그날의 첫 당직이며 어머니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농장일은 어머니 일이 아니다. 어머니는 집 뒤편에서 몬테소리 학교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만, 그럼에도 농장을 사랑한다.

아침에 어머니가 나를 깨울 때 어머니에게 욕설을 내뱉은 적이 있긴 하지만, 소나 양에게 필요한 게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내 깨닫는다. 어머니가 일깨워주니까.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일어나 커피와 오트밀을 먹고 농장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여자 친구 비언에게서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지 페이스북을 확인한다. 우리는 시간대가 다르다. 그녀는 호주에 있어서 내가 낮일 때 밤이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우리는 선박이 서로 지나치듯 온라인에서 만나 새로운 소식 있는지, 내가 간밤에 어떻게 잤는지, 그녀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한다.

아직 어둑어둑한 마당을 가로지른다. 서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날이 싸늘해서 입김으로 손을 녹인다. 장갑은 안 낀다. 우리 농부들은 장갑을 끼지 않는다. 약해보일까봐 그런 것 같다.

이날의 첫 할 일은 개를 산책시키는 것이다.

이름은 비니, 아직 강아지이다. 몇 주째 훈련시키는 중이다. 개를 훈련시켜본 적이 없어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 감이 없다. 그래도 지금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녀석에게는 천만다행이다. 거의 가망이 없었으니까.

내 탓이다. 내가 시작했다. 비니가 농장에 온 것은 양이 몇 주째 새끼를 낳고 있을 때였다. 비니는 영리하고 어렸으며 밤에 가축들을 둘러볼 때 좋은 길동무였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분만 때였을 것이다. 어미양의 태반을 녀석에게 던졌다. 녀석은 태반에 달려들더니 최상의 타르타르(스테이크의 일종. — 옮긴이)라도 되는 듯 질경질경 씹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잠깐 헛갈렸지만 녀석이 새끼양이나 어미양을 성

가시게 하지는 않았으므로 괜찮아보였다. 그렇게 해서 일이 시작되었다. 양을 분만시키고 태반을 비니에게 던지면 착한 비니는 날름 받아먹었다.

어머니가 나를 깨운 것은 새벽 여섯 시였다.

울부짖는 목소리였다. “비니가 갓 태어난 새끼양을 잡아먹어!”

공격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살펴보니 새끼양은 귀가 씹혀 새빨갳게 피로 물들었으며 다리는 발톱에 활귀인 채였다. 혼비백산했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다. 어머니가 들을 간신히 떼어놓고 비니를 쫓아 보냈다.

나는 새끼양의 상처에 요오드를 바른 뒤에 어미에게 데려다주었다.

우리는 사태를 최대한 좋게 마무리했다. 새끼양은 전날 밤에 태어나 우리에서 달아났는데 양수도 마르지 않은 채였다. 비니는 새끼양이 태반인 줄, 점심인 줄 알았다. 점심이 움직여도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녀석이 새끼양을 물어뜯은 것은 잔혹성의 발로가 아니라 식사 행위였으리라.

맘이 말했다. “비니는 철이 없어.”

내가 물었다. “알고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만.”

나는 그때 비니를 야단쳤다. 새끼양의 귀 꼴을 보고서 부아가 치밀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마당에 나오더니 역시 비니를 야단치고는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 개집에 처넣었다. 녀석을 개집에 가둔채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했다.

아버지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니를 사 와서 이름까지 지어준 것은 의아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며칠 고민하다가 비니를 지프에 싣고 20분쯤 떨어진 클론핀 언덕배기 농장의 이웃에게 가져다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비접합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때는 그저 침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는 결국 비니를 내쫓지 않기로 결정했다. 맘과 나는 다들 불러 개를 다시 데려오라고 말했다. 믿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를 훈련시켜 못된 습관을 버리게 할 수 있다는 믿음. 못된 개보다 농부에게 위협한 것은 없다. 양을 죽이고 소 떼를 미치게 하고 주인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날 아버지는 본디오 빌라도처럼 당신은 비니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비니를 들보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그렇게 녀석은 우리 집에 남았다. 그 뒤로는 태반을 먹이지 않았다. 녀석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싶지 않다. 때리고 싶지도 않다. 비니는 이제 회심했다. 짧았던 처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농장에서는 무엇에서든 배울 것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나도 그 사실을 점차 알아간다.

외양간에 갈 때면 비니는 내 발뒤꿈치를 줄줄 따라다닌다. 소들은 나를 보면 여물 달라고 아우성친다. 여물은 풀을 여름에 수확하여 발효한 것이다. 나는 수확 때 여기 있지 않았다. 이따금 아침에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면 여름과 목초지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날 아침은 아무 냄새도 안 난다. 소 먹이기는 대체로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나 혼자 할 때도 있다. 오늘은 아버지가 늦잠을 자고 있다. 잘된 일이다. 내 방식에 따지를 걸지 못할 테니까. 수십 년째 이른 아침에 일어나셨으니 가끔 농장을 부리게 해드리고 싶다.

소들은 아침마다 여물을 한 단 먹고 저녁에 또 한 단 먹는다. 예전에는 풀단을 풀어 헤쳐 손잡이가 긴 쇠스랑—우리는 ‘그레이프 grape’라고 부른다—으로 갈라 소들에게 나눠줬지만 올 겨울에 형이 아버지에게 자동식 급이기를 선물했다. 이 기계는 원통형 풀단을 굴리면서 집어삼켜 반듯하게 한 줄로 토해낸다. 내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반듯하다. 쓰레기도 줄고 시간도 절약된다. 소들은 계속 울다가 여물을 주면 먹고 씹기 시작한다. 소를 전부 먹이는 데는 매일 두 시간씩 걸린다.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앞에 여물을 대령해야 울음소리가 그친다.

낮은 외양간에서는 젓 뎀 송아지를 살찌우고 있다. 몇 주 뒤면 도살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어린 붉은 황소가 있다. 녀석은 강인하고 근육질인 데다 값도 두둑이 받을 수 있다. 하루는 외양간 청소하는데 나를 죽일 뻔했지만 용서했다. 녀석도 내가 양감음으로 두들겨 팬 것을 용서했으리라 생각한다. 녀석이 나를 빨로 들이받은 것은 그저 호기심 때문이었음을 안다. 소들은 성격이 저마다 다르다. 개처럼—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처럼—어떤 소는 착하고 어떤 소는 못됐고 어떤 소는 교활하고 어떤 소는 게을러터졌다. 기질도 다르고 기분도 변한다. 가장 순하던 녀석이 동료들을 못살게 굴고 가장 다혈질이던 녀석이 송아지들이랑 놀아주는 걸 본 적이 있다. 소의 세계에는 인종주의가 없으며 품종과 색깔이 달라도 서로 잘 지낸다.

소를 전부 먹인 뒤에 암탉들이 알을 낳았는지 살펴보고 모이와 물을 준다. 이번에는 알을 잘 낳았기에 칭찬해준다. 착한 동물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어떤 아침에는 달걀이 아직 따뜻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먹을 수란이나 삶은 달걀을 떠올리면서 미소 짓는다. 근사한 별미가 될 테니까. 하지만 그전에 할 일이 있다. 똥을 치우는 것.

분만한 지 얼마 안 된 암소들은 단독 우사에서 지내며 씻어주고 깔짚을 깔아줘야 한다. 소는 구석에서 불일을 본다든지 똥을 묻거나 덮는다든지 하는 양식良識이 없으므로 날이 갈수록 외양간이 더러워진다. 녀석들이 똥을 밟고 서 있는 꼴을 보기 싫어서 이들에 한 번씩 외양간을 청소한다.

트랙터 로더에 기계식 버킷을 장착하고 그레이프와 삼을 챙겨 외양간으로 간다. 외양간 청소를 할 때는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을 때도 있고 작업에만 몰두할 때도 있다. 기묘하기는 하지만, 소똥을 치우다

보면 선승과 모래 정원이 곧잘 생각한다. 모래를 갈퀴질에 또 갈퀴질하고 청소하고 불순물을 거르고 자신의 행위에 몰입하여 명상에 잠기는 선승. 나는 삽으로 똥을 푸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트랙터 버킷이 가득 차면 커다란 두엄 무더기인 '던클 dunkel'로 트랙터를 몰고 가 비운다. 던클은 봄에 거름으로 뿌린다. 농장에서는 모든 것에 목적과 미래의 쓰임새가 있으며 모든 행위가 순환의 일부다. 겨울의 똥이 여름의 목초를 기른다.

외양간을 전부 청소했으면 새 깔짚을 깔아준다. 소들은 기분이 더 좋아진 것 같다. 깨끗하고 뽕뽕한 깔짚에 머리를 비비고 BBC 자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물소처럼 나뭇의 모래 목욕을 한다. 나는 미소 지으며 작업 결과에 흡족해 한다. 어느 동물처럼 소도 오물 속에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

한 시간가량 지나 청소를 마치면 오전 할 일은 거의 끝이다. 이제 달걀을 먹어도 된다. 오늘은 수란으로 해야지.

조상

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인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소는 10,500 년 가까이 인류의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유전학자들에 따르면 집소의 기원은 이란의 들소 한 무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록스 auroch 또는 위르 ure 라 불리는 이 들소 품종은 현재 멸종했지만, 한때는 위풍당당했을 것이다.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와 (심지어) 더 이전의 쇼베 동굴 벽화에 남아 있는 소 그림이 바로 오록스다.



프랑스 라스코 동굴의 벽화.

선키가 2m 를 넘어 고대인과 현생종 소보다 훨씬 컸던 이 거우巨牛들은 우리 조상들에게는 딴 세상의 존재로 보였을 것이다. 신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악마로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강하고 용맹하기로는 따를 짐승이 없었다.

최초의 오록스 유해는 200 만 년 전 인도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또한 모든 숫과의 조상 보스 아쿠티프론스 *Bos acutifrons* 의 후손이다. 플라이오세에 기후가 냉각되면서 초원이 넓어져, 빙기에 이르자 대형 초식동물이 진화했다. 털코뿔소, 왕매머드, 검치호, 동굴곰 같은 거대동물이 포유류 왕국을 다스리던 시대였다. J. K. 롤링의 《신비한 동물 사전》에 나오는 동물들은 상상의 산물이지만, 자연은 그 못지않게 신비한 피조물들을 늘 만들어냈다. 오록스는 인도에서 퍼져 나가 동서로 이주하면서 숫과의 성공 스토리를 썼다.

오록스가 유럽에 도달한 것은 약 27 만 년 전이므로 유럽은 인류의 것이기 전에 오록스의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유럽 대륙은 오록스의 드넓은 목초지였다. 고대의 숲은 오록스에게 보금자리를 선사했으며 탄생과 삶과 죽음의 순환을 지켜보았다.

오록스는 현생종 소와 사뭇 다르게 생겼다. 가는 다리, 다부진 몸통, 근육질의 어깨와 목은 아메리카 들소의 사촌격에 가깝다. 뿔은 앞을 보고 있으며 30cm 까지 자랄 수 있었다.

어릴 적에 남아프리카 백과사전에서 오록스에 대해 읽고서 이 동물이 내 삶에 부재한다는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낀 기억이 난다. 부모님에게 이 신비로운 짐승에 대해 말했더니 두 사람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아마도 그날 밤이었을 것이다. 마당으로 나가 우리 소들을 애처롭게 쳐다보며 녀석들이 조금만 더 컸으면 하고 바랐던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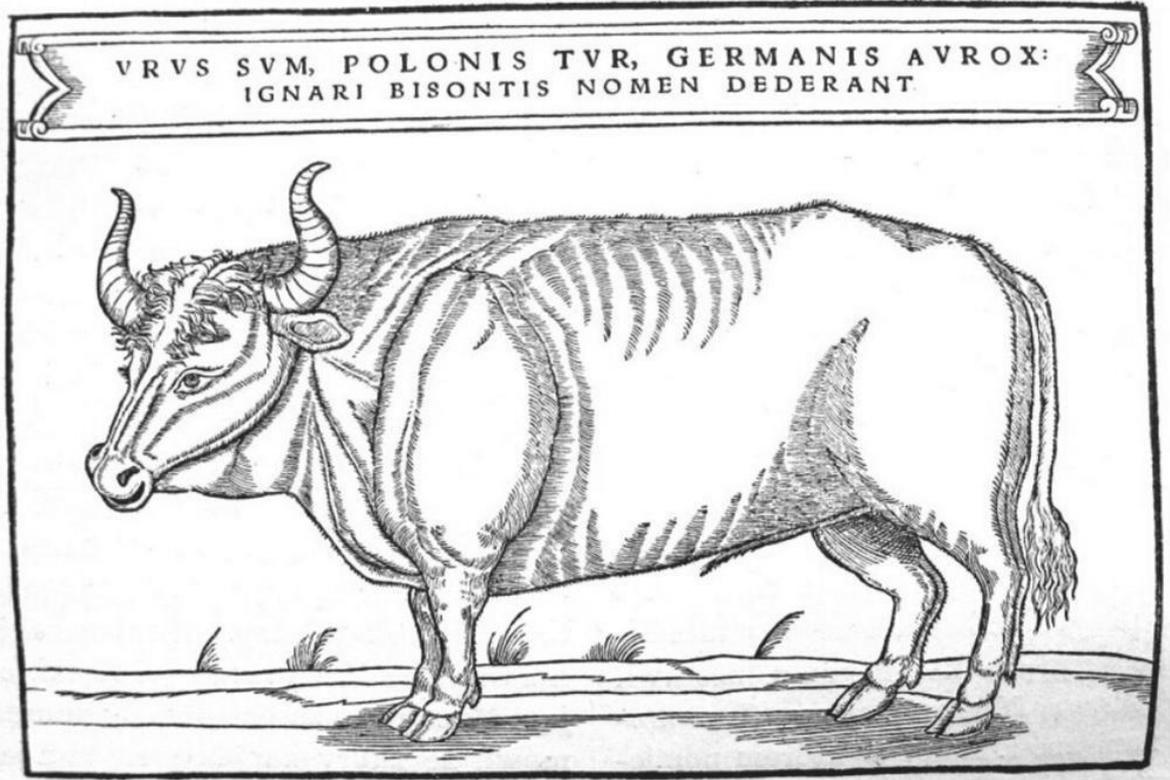
그때는 몰랐지만, 이 피조물에 매혹된 것은 내가 처음이 아니었다. 고대에 오록스는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심지어 위대한 카이사르조차 《갈리아 전기》 제 6 권에서 오록스의 힘과 용맹을 찬미했다.

들소[오록스]는 코끼리보다 조금 작고, 겉모양과 색깔과 생김새가 황소와 비슷하다. 들소는 힘이 세고 날래며, 사람이든 동물이든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공격한다. 게르마니족은 들소를 조심스럽게 함정에 빠뜨린 다음 죽인다. 이런 종류의 사냥을 통해 게르마니족 젊은이들은 강인해지고 단련된다. 들소를 가장 많이 죽인 자는 그 증거로 그 뿔들을 공개 석상에서 보여줌으로써 큰 갈채를 받는다. 들소는 어려서 잡혀도 사람에게 적응하거나 길들여지지 않는다. 들소의 뿔은 크기와 생김새와 겉모양이 우리가 기르는 황소의 뿔과는 아주 판판이다. 게르마니족은 들소의 뿔을 높이 평가하여, 가장자리에 은테를 둘러서 큰 잔치 때 술잔으로 사용한다.[《갈리아 원정기》(송, 2012) 200 쪽]

카이사르나 그의 휘하 장군들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로마인들은 갈리아에서 오록스 몇 마리를 데려와서는 사람과 맞붙어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키는 유희를 벌였다. 누가 이겼는지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오록스의 거대한 뿔은 귀족들에게 술잔으로 애용되었으며 이는 틀림없이 오록스의 쇠퇴를 앞당겼을 것이다. 실제로 1352년 케임브리지 코퍼스크리스티 대학에 기증된 뿔잔이 오록스의 뿔로 만들었으리라 믿어진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오록스 사냥은 당시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뒤로 수 세기에 걸쳐 오록스 개체 수가 서서히 줄었다. 결국 오록스 사냥은 귀족의 전유물이 되었고 밀렵꾼은 사형에 처해졌다.



지그문트 폰 헤르베르슈타인이 그린 오록스

이것은 오록스 그림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으로, 카르니올라(지금은 슬로베니아의 일부) 출신 외교관 지그문트 폰 헤르베르슈타인이 그렸다. 오록스는 폰 헤르베르슈타인의 고국처럼 머지않아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최후의 오록스는 1627년 폴란드의 약토루프 숲에서 자연사했다. 국왕은 녀석의 사냥을 거부했다. 녀석이 죽었다는 소식에 수 세기 뒤의 나처럼 슬퍼했을 장면이 상상된다. 그곳에는 녀석을 기리는 푯돌이 세워져 있다. 최후의 오록스를.

송아지

매주 커다란 풀간에 비워둔 자리에다 송아지를 위해 깔짚을 깐다. 이 자리는 '크리프 creep'라고 부르는데, 정사각형 풀단 세 개 넓이이며 둘레에 출입문이 있어서 어미가 있는 틈바닥 우사(격자식 틈새를 두고 바닥판을 깔아 분뇨가 아래로 떨어지게 한 구조물. -웁긴이)로 가서 젖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크리프는 송아지만을 위한 공간이며 안전하다. 늦은 밤에 양을 점검하러 나가다 보면 송아지들이 웅기종기 모여 곤히 잠든 모습을 볼 수 있다. 녀석들은 대형견이나 새끼 사슴처럼 웅크린 채 함께 누워 온기를 나눈다.

송아지 깔짚을 보면 대단히 만족스럽다. 깨끗하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장난치고 뛰노는 걸 보면 송아지들도 좋아하는 듯하다. 이따금 싸움 흥내를 내며 서로 들이받는데, 여름의 넓은 목초지에서 누릴 자유를 본능적으로 연습하는 모양이다.

꿀단은 두 해 겨울 동안 꿀간에 있었다. 무겁지는 않지만, 하나씩 등에 지고 나르노라면 풀을 키운 햇빛과 이 풀을 다발로 묶은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모니건. 경운농耕農이자 샷꾼으로,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따금 저 꿀단을 나를 때면 그에 대한 기억, 그의 농장에 추수하러 갔던 기억, 그와 함께 보낸 9월의 나날들을 생각한다. 다신 돌아갈 수 없는 시절.

암은 발병하자 급속히 퍼졌다. 그의 병세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더블린의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암과 싸웠다고 들었다. 결국에는 위안인지 희망인지 감사인지를 찾으려고 성모 발현지 루르드로 순례를 떠났다. 그래니—우리 할머니—말로는 그곳에서 젊은이처럼 자전거를 탔다고 한다. 그는 집에 돌아온 이튿날 죽었다.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죽기 직전에 상태가 호전된다는 말이 있었다. 그 며칠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으리라.

그가 만든 꿀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의 초지는 다른 사람들이 경작한다. 이듬해에는 만 데서 풀을 사야 할 것이다.

“송아지들에겐 좋은 깔짚이 필요해. 깃에 푹 잠기게 하렴.” 정오에 커피를 마시며 맘이 말한다. 맘은 학교 일을 하다가, 나는 농장 일을 하다가 쉬는 중이다.

내가 말한다. “방금 끝냈어요.”

맘이 말한다. “《농민 저널》에서 읽었다.”

나도 그 기사를 봤다. 《저널》에 좋은 조언이 곧잘 실린다는 건 우리 둘 다 동의한다. 소들이 깨끗하면 맘도 나만큼 좋아한다는 걸 안다.

내가 말한다. “관절증이 또 도는 건 바라지 않아요.”

“그해는 끔찍했지.”

여러 겨울 전, 큰 꿀간이 아직 새것이고 내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송아지들이 잇따라 저 악독한 병에 걸렸다. 깔짚을 깔고 청소와 소독을 했지만 송아지들은 단단히 병에 걸린 것 같았다.

병균이 배꼽을 통해 혈류에 침투하면 질병이 퍼져 관절을 공격한다. 최악의 경우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다. 안락사까지 시킬 필요는 없지만, 결코 정상적으로 자라지는 못할 것이다. 송아지들이 병에 걸린

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일찍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진다. 병이 발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에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털어놓는다. “한두 마리가 약하게 설사를 해요.” 송아지가 어떤 병균에 감염되면 설사를 하다 탈수가 일어나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죽고 만다.

아버지가 묻는다. “그렇게 나쁘진 않군. 우리한테 약 있지?”

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말한다. “양 분만시키느라 깜박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는 일하려고 일어난다.

마당에서 아버지를 만나 설사 걸린 송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프랑스 약 있잖아, 프랑스 약을 줘.”

내가 묻는다. “분홍색 섞어서 쓰는 거요?”

아버지가 말한다. “그래, 그거.”

양사羊舍에 작은 부엌이 있는데, 그곳에 응급 의약품들을 보관한다. 가루약, 물약, 주사바늘과 젤이 가득 들어 있는 작은 약국이다. 응급 상황과 분만시에 필요한 것은 전부 갖춰놓았다. 못에 걸려 있는 것은 행운의 노끈이다. 저절로 지금까지 양 50 마리를 분만시켰는데 덕분에 많은 목숨을 구했다. 작업대 위에는 성 프란치스코의 목관화가 걸려 있다. 뉴멕시코 샌타페이에서 여기까지 날아온 물건이다. 예전 캐나다에서의 삶과 사랑 중에서 남은 것은 이것뿐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울겨울에 우리를 굶어살피셨으며 이따금 밤이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양을 분만시킬 때면, 그의 앞에서 성호를 긋는다. 이것은 우리의 비밀이다. 그와 나만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는 모든 동물의 수호성인이다. 그를 태우고 다니던 당나귀는 그가 죽었을 때 울었다고 전해진다.

옥시토신과 비타민 B 사이에서 프랑스 약을 찾아낸다. 프랑스어식 이름이 붙은 초록색 액체다. 정확한 양을 뽑아낸다. 프랑스 약을 깨끗한 빈 맥주병에 주입한 뒤에 의약품들을 뒤져 분홍색 약을 꺼낸다. 분홍색 약은 수의사가 준 거라서 이름이 없지만, 설사를 멎게 한다. 두 성분을 함께 쓰면 병균을 죽일 수 있다.

액체를 흔들어 섞은 다음 주전자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린다. 라디오에서는 시리아 소식이 흘러나온다. 그리스 섬들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들 이야기이다. 아일랜드도 유럽이기는 하지만, 멀리 떨어진 전혀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든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 이곳은 아주 고요하고 이제는 주민도 거의 없으니까. 한때 시리아 난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인권 운동을 했다. 몇 해 전 기자로 일할 때 만나 함께 일한 타밀 난민들이 생각한다.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나와 여러 사람의 노력

으로 전 세계 수용소에서 타밀 난민들이 풀려났다.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서 행복한지 궁금하다. 이 시리아 사람들도 새로운 삶을 찾게 될까. 모르겠다.

주전자가 끓으며 탄생각에 빠져 있던 나를 깨운다. 마지막 혼합물을 섞은 뒤에 다와 함께 송아지를 붙들고 병을 목구멍에 밀어넣는다.

투약을 마치고 다가 말한다. “상태가 그리 나쁘진 않군.”

“오늘 아침에 똥이 안 좋았어요.”

“젖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지겠지.”

“그렇겠죠.” 내가 맞장구친다.

다와 나는 양 얘기 말고는 별로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 양은 우리의 공통 기반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곳, 다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곳.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예술이나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전혀 없다. 내가 기자나 감독일 때에도 취재나 촬영 작업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로지 양을 매개로만 진정으로 소통한다. 그래서 번식과 새끼양과 암양에 대한 난해한 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잘 지냈니, 아들이야?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랑한다, 아들이야.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있기에, 다투지 않는 한 그 세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풀려난 송아지가 어미에게 돌아가고 우리는 더는 녀석을 생각하지 않는다. 녀석은 올해 맨 처음 태어난 새끼이다. 튼튼해서 금방 회복될 것이다.

나는 “저녁 할게요”라고 말하며 바지에서 송아지 똥을 닦아낸다.

“그만하면 됐다.”

나는 날마다 감자와 채소의 껍질을 벗기고 밥상을 차린다. 맘은 당신이 할 수 있다지만, 내가 집에 있으니 집안일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다.

오늘은 소고기 버거와 양파를 요리한다. 부엌이 금세 뿌옇고 후끈후끈해진다. 맘은 한 시에 들어와 차를 마시면서 내가 저녁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 맘이 전화로 다를 불러서 우리 셋은 함께 밥을 먹는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 몬테소리 학교 이야기, 가축 이야기를 나눈다. 날씨는 여전히 낫지만 그 얘기는 넣어둔다. 여기는 아일랜드이고 겨울 날씨는 늘 낫으니까.

이름

우리는 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다. 어쨌든 세레명을 붙이지는 않는다. 소들은 특징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 이름을 부여받는다. 사람처럼 소도 저마다 사연이 있다. 오후에 외양간을 돌며 어느 암소가 분만이 가까웠는지 확인하려고 뼈를 만져보노라면 녀석들의 내력을 생각하게 된다.

흰머리검정소는 나이 든 암소로, 우리 농장의 여사님이다. 부실한 송아지를 한 번도 낳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젖을 짤 때 한 번도 내게 발길질을 한 적이 없다. 옆구리를 쓰다듬으니 한두 주 뒤면 임신할 모양이다. 외양간을 따라 걷다가 자이멘탈에게 간다. 어미 데이지를 쪽 빼담았다. 데이지는 막판에 미쳐버려서, 우리 가족을 죽일까봐 도살장에 보냈다. 데이지의 딸은 품종을 따라 그냥 자이멘탈이라고 부른다. 성격이 온순하지만, 새끼를 낳고 일주일 동안은 신경질병에 걸려서 사람도 짐승도 녀석 가까이 가지 못한다. 나도 자이멘탈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비니는 근처에 얼씬도 않는다.

신경질병은 새끼를 낳은 암소 중 일부에게서 발병한다. 새끼를 보호하는 나름의 방식이기에 내버려두는 게 상책이다. 송아지는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자라므로 우리는 어미소가 원하는 대로 한다. 다행히 자이멘탈은 이번엔 아직 새끼를 낳지 않았다.

리무진들과 블랙들도 손으로 쓸어본다. 녀석들은 귀찮다는 듯 슬렁슬렁 내게 꼬리를 휘두른다. 비니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스러워 외양간 통로에서 짚어댄다. 착한 소이니까 괜찮다고 말하자 그만 짚는다.

내가 사연을 모르는 소도 많다. 맘도 모른다. 소를 사는 건 다가 도맡기 때문이다. 다는 웨스트미드 평야에서 리트립 언덕 지대에 이르기까지 중부 지방을 누비며 우시장을 찾아다녔다. 리트립의 모힐 우시장은 작가 존 맥개헌을 만나곤 했다. 두 사람은 한두 번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책이 아니라 소에 대해서. 그 자리에 끼지 못한 게 아쉬웠고 지금도 아쉽다. 맥개헌에게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는 우리 부모님이 아는 유일한 현대 작가이다. 오래전에 (그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텔레비전 드라마 《여인 중에 Amongst Women》를 온 가족이 봤다. 우리는 주인공 모런과 그의 농장 생활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보았다. 모런의 불같은 성미에서는 다를 봤고 가족의 친밀함에서는 우리 자신을 봤다.

맥개헌은 나처럼 농사를 알았다. 이따금 일이 잘 끝나고 날씨가 궂지 않으면 글을 쓰고 가축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싶다.

마지막 리무진을 쓰다듬어보니 분만이 가까웠다. 분만사로 옮겨야겠다. 녀석은 나이가 많지만 가족이 매끈하고 반짝거리서 걸으로 봐서는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어느 농장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다. 나중에 잊지 말고 다에게 물어봐야겠다.

리무진은 프랑스 품종으로, 처음에는 짐소였다. 19세기까지도 프랑스 바깥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품종 중 하나이다. 고기 대비 우유 생산량이 많아서 많은 농장의 주력 품종이기도 하다. 리무진 송아지는 덩치가 작지만, 덕분에 분만이 훨씬 수월하다. 다들 알다시피 성미만 빼면 나무랄 데 없다. 녀석들이 경주마처럼 배수로를 내달리고 벽을 긁어내고 황소와 싸우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붉은색은 열정의 색깔이라고들 하지만 리무진의 색깔이기도 하다.

며칠 전에 태어난 송아지와 어미를 분만사에서 내보내고 리무진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 분만사는 우리 농장에서 제일 크고 고정틀 calving gate 이 있다. 형이 2년 전에 다에게 사줬다. 고정틀은 현대식 금속제 장치로, 분만중에 어미소의 머리를 고정시킨다. 이렇게 하면 사람과 소 둘 다 더 안전하게 분만을 진행할 수 있다.

리무진과 나는 함께 외양간을 통과한다. 충혈되고 젖으로 가득 찬 젖통이 앞뒤로 덜렁거린다. 우리는 이걸 '용수철 튄다 sprung'라고 부른다. 질은 부풀고 늘어졌으며 맑은 점액이 얇게 매달려 있다. 하루 이틀이면 새끼를 낳을 것이다. 내게 말을 해줄 수 없으니 이런 징후를 읽고 알아내는 수밖에 없다.

녀석의 옆구리를 찌르며 분만사로 몰고 간다. 녀석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주위를 둘러보다 안으로 들어간다. 여물과 작은 들통에 든 견과를 준다. 소가 좋아하는 냄새를 첨가했다. 녀석은 여물과 견과를 짹째 먹어치운다.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 할 일 목록에 녀석의 이름을 기입한다.

달리기

달리기를 시작한 건 1년 전이다. 이따금 힘들게 달릴 때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달렸는지 잊어버린다. 다리나 발목의 통증도 있다. 그저 존재할 뿐. 운동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일주일에 며칠씩 동네 숲이나 체육관에서 가서 한두 시간 땀을 흘린다. 운동을 하면 의욕이 생기고 농장일에서 한숨 돌리게 된다. 가축으로만 둘러싸인 채 농장에서 너무 오래 지내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본격적으로 달린 지는 9개월째이다. '본격적'이라 함은 21km가 힘들지 않거나 더는 유난하지 않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생각으로부터, 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자아의 정원을 가꾼다고 말한 것과 같은 변화의 작은 욕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호주의 옛 집에서 첫 소설을 홍보하던 때였다. 중병을 앓고 나니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고 금방 숨이 가빠졌지만, 몇 주 지나자 러닝 머신에서 버티는 시간이 늘고 심장이 튼튼해졌으며 아일랜드에 돌아왔을 때는 실내 달리기를 졸업하고 실외로 진출했다.

지난 8 월 5km 경주를 처음 달린 기억이 난다. 동네 숲을 가로지르는 단순한 코스였는데, 유일한 목표는 완주였다. 그렇게 멀리까지 달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느리긴 했지만 끝까지 달렸다. 결승선이 가까워졌을 때 탱크에 연료가 많이 남아 있는 걸 알고서 막판 질주를 했다. 말로만 듣던 ‘러너스 하이’(격렬한 운동 후에 맛보는 도취감. —오키니)를 처음으로 느꼈다.

장거리 달리는 농사와 같아서 훈련과 인내와 준비가 필요하다. 하루 만에 소 떼를 거느린다거나 암소를 예정일 전에 분만시킬 수 없듯 다짜고짜 수요일에 마라톤을 하겠다고 마음먹을 수는 없는 일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비가 오든 화창하든 피곤하든 이곳에서 매일 20 분씩 달렸다. 일주일에 한 번씩 더 멀리 달리며 거리를 늘렸다. 농사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듯 달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땐 핀란드의 장거리 달리기 선수 파보 누르미를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신이 전부이다. 근육은 고무 조각에 불과하다. 내가 나인 것은 오로지 정신 때문이다.”

밖에서 달릴 때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암소들과 다가올 분만을 생각한다. 송아지와 사소한 질병들을 생각한다. 아직도 대책 없이 축축한 초지와 남아 있는 여물을 생각하며 이걸로 버틸 수 있을지 고민한다. 내게, 계절에, 시간에 의존하는 이 모든 생명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조깅에서 달리기로 속도를 올리고는 통증을 참으며 1년 전의 소년을, 온갖 일에 시달리던 소년을 앞지른다.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는 않는다. 오직 사랑뿐. 지금은 내가 통제권을 잡았으며—내 삶은 안정과 질서를 찾았다—가축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달리기의 철학자를 한 명 발견했는데, 조지 시헨이라는 의사 겸 달리기 선수이다. 그의 책을 읽으며 달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떤 면에서 농장도 이해할 수 있었다. 시헨은 인간이 동물이며 달리는 동물로서의 적합도를 극대화하려는 본능이라고 말한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에서 힘이 솟아나고 길의 끝이 가까워짐을 느낀다. 운동 본능에 대해, 소와 우리 말과 비니와 움직이는 또한 움직이고 싶어 하는 모든 동물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 생각한다.

나중에 마당으로 나가 소들을 먹일 때 녀석들은 나의 달리기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이 저녁만큼은 나를 하나의 짐승으로 대해줄지도 모른다.

저녁

4시 반에 체육관이나 숲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좋다. 그때쯤이면 가축들은 배가 꺼져서 저녁 사료를 줘야 한다. 다는 한참 마당에 나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때는 함께 저녁 일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체육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자를 보내 쉬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아침에 내가 하기로 한 작업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선 들통 두 개에 견과를 채워 젓 뎨 송아지에게 먹인다. 녀석들은 점점 살이 오르고 있으며 고기에 근사한 마블링이 생길 것이다. 수송아지와 암송아지는 격리되어 있는데, 사일로 걸쇠 여는 소리에 음메 하고 운다. 빈 플라스틱 구유에 견과를 좌르르 쏟는다. 젓 뎨 송아지는 견과를 하루에 두 번 먹으며, 구유에 견과를 부을라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쳐댄다. 이따금 견과를 좋아하지 않는 녀석이 있는데, 딱 송아지들만큼 빨리 자라지 못하지만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

날씨가 하도 껏어서 농장에서는 늘 재킷을 입기 때문에 나의 재킷에는 그동안 분만시킨 양들의 양수 냄새가 배어 있다. 젓 뎨 송아지들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른다. 생긴 건 사람인데 냄새는 양이니 말이다. 녀석들을 여러 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는 걸 안다.

다음으로는 어른소를 먹여야 한다. 이 일에는 트랙터가 필요하다. 존 디어 제품인데, 고장 없고 튼튼하고 인기 많아서 내가 보기에 트랙터 세계의 BMW 이다. 우리 것은 북아일랜드에서 와 이제 길이 들고 있다. 요 몇 주간 스타터가 말썽이어서 시동을 거느라 매일이 전쟁이다. 점화 장치를 켜도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 교류 발전기에 렌치를 갖다 대야 한 것도 여러 번이다. 이게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다가 하는 것을 많이 봐서 그대로 따라하니 몇 분 뒤에 모터가 딸각 하며 시동이 걸린다.

원통형 꼴단을 준비하여 트랙터 로더(커다란 날이 달린 기계식 팔)로 들어올린 다음 트랙터에서 나와 꼴단을 두른 플라스틱 끈을 잘라준다. 어른소는 꼴단 두 개를 먹는다. 트랙터를 자동 급이기로 몰고 가 꼴단을 잡아주는 플라스틱 그물을 벗기고 꼴단을 급이기에 붓는다. 급이기는 회전하면서 꼴단을 집어삼켜 소가 먹을 수 있도록 여물을 가지런히 뱉어낸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트랙터를 통로로 운전하면서 사료가 올바른 위치에 쏟아지도록 하는 것뿐이다. 트랙터가 들어오자마자 소들이 잠에서 깨어 흥분한 목소리로 서로를 부른다.

이 광경을 보면 소에게 인지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녀석들은 트랙터를 알아보고 이게 사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 기억력과 사고력이 있으며, 사람과 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세상을 나름의 방식으로 인식한다. 소가 사람 얼굴을 1 년까지도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녀석들이 이곳에 갇혀 있는 걸 싫어하지는 않을까 궁금해진다. 하지만 이 시기에 초지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고 외양간은 따뜻하니 안에 있는 걸 사람만큼 좋아할 것 같다.

궂은 날씨 때문에 올해는 황소도 외양간 안에 뒀다. 녀석은 틈바닥 우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이따금 송아지를 들이받고 발정 난 암소를 올라탔다. 그럴 때면 암소가 교미를 받아들여 임신하는지 눈여

겨봐야 한다. 임신한 암소는 황소에게서 떼어두었다. 녀석이 올라타려다 부상이나 유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풀단을 하나 더 넣고 낮은 외양간으로 가서 젓 뎀 송아지를 먹인다. 녀석들은 아까 부어준 견과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우고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사료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여물을 양에게 준다. 녀석들은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는데, 마지막 한 마리가 먹을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소에 비하면 양은 점잖고 명칭한 동물이다. 오랫동안 돌봐줬는데도 내가 누군지 여전히 모르는 듯하다. 양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매일 아침 나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아닐까 싶다. 양이 사람 얼굴을 기억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런 증거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물을 점검하고 새로 새끼를 낳은 어미양들의 우리를 돌아본다. 한 마리씩 작은 들통에 견과와 여물을 준다. 덧사료를 줘야 하는 새끼양도 있는데, 이 일은 한 시간 넘게 걸린다. 우유를 데워 젓병에 담아 먹여야 하기 때문이다. 새끼양은 먹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서두르면 안 된다. 이따금 작은 이마에 뽀뽀하기도 한다. 어찌나 다정하고 순박한지. 나는 자리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에 잠긴다.

양사에는 라디오가 항상 켜져 있다. 다는 라디오를 들으면 양들이 사람 목소리에 친숙해진다고 신문에서 읽었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가가 말을 건네도 겁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라디오는 밤이 되면 우리에게도 말동무가 된다. 아름다운 음악이 어둠 속에 메아리친다. 양들이 손 오 리어더나 데이비드 보위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여기서 들어보니 개의치 않는 듯했다.

오늘 저녁은 컨트리 가수 조니 캐시의 화음이 양사에 울려 퍼진다. 나는 무슨 노래인지 알아듣고 미소 짓는다. 오래전 삶, 다른 삶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음악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맥주를 훌쩍거리며 담소를 나누는 내 모습이 보인다. 도시에서 허비한 돈, 벽에 대고 오줌 싸던 장면, 나를 억압하던, 그리하여 언제나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던 도시적 삶의 침투도 보인다. 예전에는 내가 용감한 기자에다 영리하고 알뜰한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농부의 아들이 내 참모습이라고, 나머지는 모두 연기였다고 생각한다. 잠깐 서울취 흥내를 낸 시골취처럼. 나는 초지의 규칙을, 땅과 소의 길을 알지만, 도시의 규약, 영화나 미디어 산업의 규칙은 다르다. 그런 규칙은 훈련받은 적이 없었기에 배우느라 10년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런 도시 환경에서, 인간 농장에서 무척 행복한 적도 있었다. 그곳에서 여자 친구 비비언을 만났다. 몇 해 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드니에서였다. 우리는 둘 다 무척 어렸으며 그 뒤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저녁 6시 라디오에서 만종晚鐘이 울리며 내 잠을 깨운다. 새끼양은 젖병을 비웠고 이제 형도 먹여야 할 테니 나는 의례를 반복한다. 젖을 데우고 팔뚝으로 온도를 재고 녀석을 품에 안는다.

오랜 이웃의 집에서 빌린 작은 수유용 스톨에 앉는다. 서두르지 않고 과정을 음미한다. 만종이 다 울려 외양간은 이제 적막하다. 가축 150 마리가 전부 먹이를 먹고 있다. 비니는 통로에서 끈기 있게 나를 기다린다. 오늘은 산책시킬 시간이 없지만 내일은 꼭 기억해야 한다. 훈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요즘은 산책과 일이 끝나면 매일 베이컨을 준다. 녀석은 배우는 게 빠르다. 다조차도 혀를 내들었다.

집에 가는 길에 송아지들이 크리프에서 뛰노는 광경을 들여다본다. 아파서 프랑스 약을 먹인 녀석은 잠들어 있다. 주둥이를 만져보니 온기가 있다. 회복되리라는 느낌이 든다. 녀석이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나를 알아보고 생기를 찾는다. 팔짝팔짝 뛰면서 똥을 지리는데, 여전히 물똥이지만 아까보다는 덜하다.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서 나는 미소를 머금는다. 이따금 내가 영화 《조지 왕의 광기》에서 대변을 검사하는 의사 같다는 생각이 든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한다. 두 시간 만에 처음 내뱉은 말이다.

마지막으로, 리무진을 살펴본다. 녀석은 우리를 서성거리며 지푸라기를 뽑고 있다. 오늘 밤 새끼를 낳을 것이다.

이제 칠혹 같이 깜깜하다. 외양간 조명을 가로등 삼아 집으로 돌아온다. 나의 하루는 어둠에서 시작하여 어둠에서 끝난다. 어둠은 해가 없음으로 자신을 드러냈으며 이곳의 분위기는 음울하다. 다들 햇살이 비칠 것을 생각하며 기다린다.

“잘 시간이야, 비니.”

비니가 젖으며 개집으로 달음질한다. 물그릇을 점검하고 녀석이 밤에 먹을 사료를 부어주고 개집 문을 닫는다. 오래된 경유 탱크가 녀석의 침실이다. 따스하고 보송할뿐더러 녀석이 밤에 싸돌아다니지 못하게 가뒤통수 수 있다. 녀석도 양들도 안전하다.

나는 지쳤다. 기나긴 또 하루가 지나갔다.

신

오록스가 가축화되면서 두 아종—인도의 브라만 Zebu 과 유럽의 타우린 Taurine—이 생겨났다. 모든 현생종 소는 두 아종 중 하나에 속하며 둘 다 오래전부터 신성시되었다.

인도의 브라만은 청동기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며 어깨 위의 독특한 혹과, 목 아래로 처진 커다란 균퓌이 특징이다. 힌두교 신들의 만신전에서 브라만은 신성한 황소이자 시바의 바하나인 난디로 표현되었다. 바나는 신을 태우는 수레로, 성 프란치스코의 당나귀 격이다.

시바가 난디를 바하나로 낙점한 것은 당시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 농부여서 소가 주된 운송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시바는 전쟁신이 아니어서 명상과 사색으로 시간을 보냈으므로 느리지만 믿음직한 소를 타고 다니는 것은 이치에 맞았다. 난디는 힘과 차분함과 정력도 겸비했다.

인도 아대륙 전역에 난디 사원과 조각상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난디 사당을 모신다. 난디의 귀에 대고 소원을 말하면 이뤄진다는 속설이 있다. 난디는 산스크리트어로 ‘행복’을, 옛 타밀어로는 ‘황소’를 뜻하기에, ‘행복한 황소’라고 불러도 좋겠다. 난디는 정말이지 행복하다. 인도에서는 보호받는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타우린은 브라만보다도 오래되었으며 약 1만 년 전 극동에서 생겨났다. 이 시기에 정주 농업과 농사 기술이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최초의 대문명인 이집트 문명에 전파되었다. 타우린은 이때 함께 전파되면서 논밭을 일구고 젓과 고기와 심지어 추운 밤에는 온기를 베풀었기에 사람들이 애지중지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난디가 인도에서 신격화되었듯 파라오 이전 시대의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소 아피스를 숭배했다.

아피스는 후대의 상형문자와 조각상에서 브라만의 특징인 독특한 혹과 균퓌이 없는 걸 보면 타우린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 아피스는 현생종 유럽 황소처럼 당당하고 우락부락하고 역세다.

이집트의 신성한 동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아피스는 농업에서 힘과 비옥함을 상징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고 언어로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은 최초의 창조신 프타의 종이자 현현이었다. 기록이 모두 보존되지 않았기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피스는 사후에 신이 된 왕을 표상했을 가능성도 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랐을 때 유대인이 숭배하던 황금 송아지는 아마도 아피스였을 것이다. 아피스 또한 신성한 소, 황금 송아지, 다산을 가져다주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대인과 같은 셈족인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한 창조신 엘은 ‘토루 엘’이라 불리는 황소의 형상이었다.

신성한 황소 아피스가 가장 큰 영예를 누리는 것은 죽어서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내세를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슬픈 곳으로 찬미했으니 말이다.

《아피스 파피루스》에는 아피스를 미라로 만들고 매장하는 의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시 사항이 어찌나 꼼꼼하게 적혀 있던지, 의식을 거행하는 사람은 절차가 조금만 어긋나도 아피스가 하늘로 돌아가지 못해 부활하지 못하여 생명 자체의 균형이 흐트러질까봐 전전긍긍했을지도 모르겠다.



황소와 (생명을 상징하는) 앙크를 표현한 이집트의 돌새김. 룩소르 신전(테베)에서 발견.

매장 절차는 70 일이 걸렸으며 이 일을 맡은 사제들은 그 기간 동안 몸을 씻을 수 없었다. 의식을 거행하는 내내 통곡하고 탄식해야 했으며 소젖과 소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 엄격한 식단과 단식을 지켜야 했다. 이 의식이 다시 한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상상해본다. 불붙은 세이지의 향기가 공중에 감돌고 아피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아피스는 웅장한 돌단에 신처럼 놓여 있다. 사제들이 아피스를 씻고 닦고 미라로 만들 것이다. 머리와 주둥이에서 시작하여, 내장을 제거한 몸통에 방부 처리를 할 것이다. 그의 소들은 애도의 울음을 울 것이다. 송아지가 죽거나 무리 중 한 마리가 마지막 여행을 떠나면 우리 소들도 그렇게 울었다.

미라가 된 아피스는 하이집트의 멤피스 인근에 있는 망자의 도시 사카라로 운반되었다. 약 5000 년 전 이곳에서 역사상 최초의 완전한 복합 건물 단지가 건설되었다. ‘영원을 위한 집’이라는 뜻의 이 마스타바

들은 흙벽돌로 지었는데, 지붕이 평평하고 벽이 기울어졌으며 피라미드의 전신이였다. 그 안에서 아피스는 70 톤의 거대한 검은색 석관에 안치되었다. 이곳에서 아피스는 하늘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하지만 아피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가 죽으면 이집트의 모든 소들 중에서 그의 환생한 자아를 찾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달라이 라마를 찾는 일과 비슷했을 것이다. 후계자로 선발되려면 정해진 표시와 특질이 있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말이다. 선발된 후계자는 사람의 손에 길러지고 암소의 하렘을 거느리고 사제와 관리인의 돌봄을 받으며 평화롭게 살았다.

1850년 프랑스의 학자 오귀스트 마리에트가 조세르 피라미드 근처에서 사카라 사라페움(고대 이집트의 두 신전 중 하나로 그리스·이집트의 신 사라피스를 예배하기 위해 봉헌된 신전. — 옮긴이)을 발굴했다. 신전의 무덤들은 카이로 농업 박물관에 있는 것 하나만 빼고 전부 도굴당했지만, 아피스 황소가 약 스물다섯 마리나 안치되어 있던 것을 보면 이 풍습이 이집트 왕조 대대로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아피스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페르시아인들로부터 이집트를 되찾는 동안 몸소 아피스에게 제사를 올렸다.

이렇듯 야생소는 단순히 가축화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영적 세계에까지 자리 잡았다.

말

우리 농장에서는 늘 말을 키웠다. 타거나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일랜드 전통 때문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며 말은 트랙터보다 훨씬 오랫동안 우리의 생활 방식이었다. 맘과 다가 어릴 적에는 농장마다 말이나 당나귀가 한 마리씩 있어서 마차를 끌고 땅을 갈았다.

인근 마을 발리날리에서는 매년 6월에 코네마라 조랑말 경진 대회가 열리는데, 다가 교배용 암말을 장만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곳에서였을 것이다. 애슬링은 우리의 첫 말이었는데, 몇 년간 해마다 새끼를 낳아주었다. 망아지들이 늘 후한 값을 받았기 때문에 애슬링은 우리 농장의 자랑이었다. 내 여동생 린다와 나이 차이가 며칠밖에 안 나서 곧잘 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한 기억이 난다.

코네마라는 아일랜드 서부 태생의 토종 품종이다. 듣기로는 바이킹의 혈통이며 스페인인들이 서해안이 상륙했을 때 달아난 안달루시안 말들과 피가 섞였다고 한다. 혈통이야 어찌 됐든 코네마라는 이 나라의 말이다. 작지만 우아하며 경진 대회용 조랑말로 제격이다. 애슬링의 자매는 세계 유수의 장애물 뛰어넘기 대회 중 하나인 더블린 말 경진 대회에 출전했으며, 나중에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에게 팔렸다고 들었다. 그 말의 이름은 모르겠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제 호황을 일컫는 ‘켈트의 호랑이 Celtic Tiger’ 시기에 농촌의 말 수요가 대단해서 우리는 말 떼를 열 마리로 늘렸지만, 그 뒤에 경제가 주저앉으면서 아무도 말을 원하지 않는 바람에 대부분 헐값에 팔아치웠다. 말을 시장에 데려가는 날 아버지는 침울한 표정이었다. 다들 근사한 조랑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중 한 마리에게 유명한 종마 리어흐 마하(아일랜드 신화의 영웅 쿠 홀린의 전차를 끌던 말)의 이름을 따 그레이 오브 마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리어흐 마하는 호수에서 나왔으며 신들이 전사 쿠 홀린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한다. 쿠 홀린 이야기의 무대는 우리 지방이다. 나는 리어흐 마하가 한때는 바로 이 들판을 뛰어다니지 않았을까 상상했다. 그레이 오브 마하는 길들여지지 않은 채 종마로 팔렸지만, 주인을 잘 만났다면 우수한 후손을 배출했을 것이다. 나머지는 유럽 대륙에 팔려 가 도살장에서 최후를 맞았다.

애슬링은 교배를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고의 망아지 헤이즐을 낳았다.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헤이즐을 칭찬했으며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와 녀석을 사고 싶어 했지만, 다는 늘 퇴짜를 놓았다. 헤이즐은 어미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해 코네마라 조랑말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 망아지에게 주는 파란 리본을 받은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큰 자랑이었다. 그 뒤로 두 분은 경진 대회에서 은퇴했으며 더는 말을 교배하지 않았다.

애슬링은 몇 해 뒤에 앞뜰에서 평안하게 늙어 죽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헤이즐과 당나귀 오살(아일랜드어로 ‘당나귀’를 뜻한다)이 있다. 둘은 바깥의 질척거리는 땅에서 지내고 겨울에는 먹이 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풀을 가져다 먹인다. 몇 주 전 내가 먹이를 주지 않은 날, 오살의 새끼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다. 그 상황의 ‘만일’에 대해 수없이 생각했다. 만일 그날 나갔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만일 이튿날 아침 일찍 나갔더라면 그때까지 살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만일, 만일, 만일 …… 하지만 죽은 이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하여 오살과 헤이즐은 아침마다 내가 풀을 가져다주기를 기다린다. 풀에서는 여름 냄새와 햇볕의 느낌이 난다. 녀석들도 느낄 수 있음을 안다. 녀석들이 나를 반기려고 달려오고 들뜬 울음소리가 들린다. 풀단을 풀어 헤쳐 녀석들에게 먹인다. 어떤 날은 옆구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걸기도 한다. 말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야생으로 돌아간다.

이 풀은 3년 묵은 것이다. 그 뒤로는 풀을 새로 장만할 만큼 좋은 여름이 한 번도 없었다. 믹 삼촌의 땅에서 벤 것들이다. 그도 죽었다. 우리는 숙모에게서 그의 농장 일부를 빌렸는데, 당신의 땅이 다시 쓰임새를 찾은 것을 보고 믹도 흡족했을 것이다. 기묘하게도 믹이 폐암으로 쇠약해지면서 잡초가 땅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마치 질병이 모든 것을 덮치는 것 같았다.

그 땅은 다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곳이다. 이제는 내가 다와 함께 일한다. 임차이긴 하지만 이 땅을 소유하는 것은 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땅을 회복시켜서 이젠 날이 건조하면 푸른 풀이 자란다. 다는 땅이 회복되었다거나 초지가 다시 푸르러졌다는 얘길 한 번도 안 했지만, 나는 안다. 느낀다. 맘도 느꼈다. 풀은 밀짚처럼, 소처럼 다른 시절을 기억한다.

믹 삼촌은 손재주가 뛰어났다. 다들 그가 정비공이나 기술자가 되어야 했다고 말한다. 엔진 그리스와 엔진 오일을 묻히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 했기 때문이다. 어릴 적 어느 여름날 우리가 삼륜 트랙터를 타고 트레일러에는 정사각형 꼴단을 가득 싣고 소란힐에 왔을 때를 떠올린다. 나는 믹의 아들인 사촌 마이클과 함께 꼴단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살아 생전 그렇게 높이 올라간 것은 처음이었다. 삼륜 트랙터가 소란힐을 내려가다 집과 꼴간 쪽으로 방향을 틀 때 우리 둘 다 죽어라 매달린 기억이 난다. 마이클은 이제 성인이 되었으며 자식도 낳았다. 믹의 트랙터는 팔렸으며 땅은 나뉘고 변했다. 아직도 우리는 당장이라도 믹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입에는 담배꽂초를 물고 마당에 나타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믹의 죽음은 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다. 둘은 형제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둘은 친구였다. 말들을 쓰다듬고 녀석들이 마지막 남은 꼴을 먹는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하니 이 사별로 아버지의 마음이 굳어졌겠구나 싶다. 아버지는 이제 미사를 잘 가지 않는다. 믹을 잃은 것과 존 삼촌이 3년 전에 급사한 것 때문에 하느님에게 화가 났나보다.

존 삼촌은 농장 근처에 자작나무를 심었다. 버치뷰라는 이름은 '자작나무 birch'에서 났다. 자작나무를 보면 존과 그의 고요한 노동이 떠오른다. 그의 심장 마비는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으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옛그제 일 같다.

그러니 내가 아침마다 꼴간에서 꼴단을 나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족과 지금은 이곳에 없는 사람들의 기억을 고스란히 나르는 셈이다. 나는 말에게 걸어가 문을 지나서 꼴단을 땅에 털썩 내려놓는다.

헤이즐이 히힃 하고 운다. 나는 녀석을 쓰다듬어주고는 안마당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이 땅에는 말이 있을 것이다.